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안성 역사의 이해

안성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

안성시 학예연구사 홍원의

——— 목 차 ———

1. 안성의 지명변화 ····· 1
(1) 안성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 1
(2) 삼한시대의 소도 발굴 ····· 2
(3) 안성이라는 지명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 3

2. 불교문화가 번성한 안성 ····· 7
(1) 봉업사지 ····· 8
(2) 칠장사 ····· 9
(3) 청룡사 ····· 14
(4) 석남사 ····· 15
(5) 청원사 ····· 17
(6) 미륵의 고장 안성 ····· 19

3. 외적을 막아낸 안성사람들 ····· 22
(1) 몽고군을 물리친 신명 송문주 장군 ····· 22
(2) 홍건적을 물리친 극적루 ····· 24
(3) 고추분말을 적에게 날린 홍나비 장군 ····· 25
(4) 2일간의 해방을 쟁취한 원곡·양성민들 ····· 27

4. 천년의 기술 안성유기 ····· 29

5. 전조선 3대시장 안성장 ····· 39

6. 안성 청룡사와 남사당 바우덕이 ····· 43
(1) 사당의 어원 ····· 43
(2) 사당패의 분포와 안성청룡사 ····· 47
(3) 바우덕이란 누구일까? ····· 51
(4) 경복궁 중건과 옥관자 ····· 53

1. 안성의 지명변화

(1) 안성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안성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에 사용하던 유물의 출토로 알 수 있다. 1969년 물건을 자르기 위하여 사용된 구석기 유물인 자르개가 고삼면에서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공도읍 승두리, 용두리, 웅교리 등지에서 몸돌과 격지를 비롯하여 찍개, 긁개 등 다양한 구석기 유물이 수습되었다.

미양면 개정리 출토 격지

신석기시대 유물로는 죽산 봉업사지에서 빗살무늬 토기편과 갈돌이 출토되었고, 공도읍 마정리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내부에서 빗살무늬 토기편 1점이 확인되었다. 또 보개면 동평골프장 부지에서도 신석기시대 주거지가 발굴되기도 하였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안성 곳곳에서 출토되어 이때는 이미 안성전역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인돌과 선돌은 안성의 여러 곳에서 나왔다. 현수동, 고삼면 쌍지리, 양성면 명목리, 대덕면 진현리, 원곡면 반제리, 공도읍 만정리, 삼죽면 미장리, 죽산면 장계리 등지에 고인돌이 있으며, 금광면 내우리에는 선돌이 있다.

봉업사지 출토 갈판과 빗살무늬 토기편

(2) 삼한시대의 소도(蘇塗) 발굴

원곡면 반제리에서는 2004년 안성~음성간 고속도로 부지내에서 '소도(蘇塗)'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굴되어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소도는 삼한시대에 천신(天神)을 제사지낸 지역의 명칭으로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에서는 매년 1~2차에 걸쳐 각 읍별로 제주(祭主)인 천군(天君)을 선발하고 특별 장소를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면서 질병과 재앙이 없기를 빌었던 곳이다.

소도가 발굴된 곳은 원곡면 반제리의 매봉산 정상부이다. 산 정상부에 길이 141㎝, 너비 320㎝, 높이 86㎝의 자연암반이 있으며 그것을 환호가 둘러싸고 있다. 이 암반은 제의행위가 행하여 질 수 있는 제단역할을 하고 있다. 환호가 출토된 유적은 반제리 유적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10개소 밖에 없다. 그 중에도 반제리 유적은 그 규모나 형태가 잘 보존된 지역에 속한다. 지금은 발굴 후 보존을 위하여 다시 덮어 두고 터널을 뚫어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곳이 반제터널이다.

반제리의 청동기 주거지는 73기로 현재까지 발굴된 청동기 유적으로는 가장 큰 취락지역 중 하나로 손꼽힌다. 물론 앞으로 고고학 성과에 따라 얼마든지 더 큰 규모의 취락지가 밝혀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고고학계에서는 공도 만정리에서 원곡면 반제리 그리고 양성면 방신리에 이르는 구간을 우리나라 청동기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중요한 유적으로 보고 있다.

반제리 환호

(3) 안성이라는 지명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안성은 원래 마한의 54개국 중 한 곳이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3년조에는 왕이 한산(漢山) 아래 성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를 옮겼으며 영역이 북으로 패수(浿水), 남으로 웅천(熊川), 서쪽으로는 대해(大海), 동쪽으로는 주양(走壤)에 이르렀다고 한다. 학계에서는 웅천을 안성천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나, 공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웅천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온조 13년(BC5년)에 안성이 마한에서 백제로 편입이 되어 백제의 영토가 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후 고구려의 광개토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이 한강 유역에 있던 백제를 웅진 방면으로 밀어내고 경기도 남부 지역까지 점령했다. 475년 이후 고구려는 지명을 새로 붙였는데, 안성은 내혜홀(奈兮忽), 죽산은 개차산군(皆次山郡), 양성은 사복홀(沙伏忽)로 명명하였다. 홀(忽)은 성(城)을 의미하는 고구려식 지명으로, 당시에도 안성에는 성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2015년 안성시 도기동 산 53번지 일원을 발굴하던 기남문화재연구원은 깜짝 놀랄만한 유적을 발표하였다. 안성소방서 맞은편 야산이 백제에서 처음 성을 쌓아서 사용하던 것을 고구려가 빼앗아 보축해 사용한 목책성(木柵城 ; 구덩이를 파고 나무기둥을 박아 서로 엮어서 성벽을 만든 방어 시설)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사료로만 전해지는 삼국시대 책(柵)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고, 고구려의 남진 경로를 재확인해 주는 등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10월 24일 사적 536호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

안성 도기동산성 목책 1구간

하여 웅천이 안성천이라는 주장에 다시금 큰 힘이 실리고 있다. 백제본기에 온조왕이 웅천에 목책을 세웠다는 기록이 도기동 목책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시 마한 54개국 중 가장 맹주국인 목지국이 바로 안성이라는 주장이 유력하게 되었다.

안성 도기동산성 목책 2구간

안성 도기동산성 목책 3구간

서기 551년 백제의 성왕은 고구려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을 다시 되찾았으나 이후 553년 진흥왕에 의해 한강은 다시 신라로 넘어간다. 이때부터 안성은 신라의 영역이 되었으며, 경주에서 중국 진출의 교두보인 당항성(현재 화성시 서신면으로 추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이 되었다. 이처럼 안성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기 차지한 곳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다. 따라서 안성지역의 발굴현장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물이 골고루 출토된다.

신라의 입장에서 쓴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 소나(素那)장군은 백성군의 속현인 사산(지금의 천안시 직산) 사람이라고 한다. 신라 선덕여왕 때인 인평(仁平) 년간에 사산의 경계가 백제지역과 서로 드나들었으므로 서로 전쟁을 많이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직산은 신라시대부터 안성의 속현이었다가 고려 현종 9년(1018)에야 천안으로 편입된 곳이다. 이로보아 고구려가 물러가고 난 이후 신라가 삼국통일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때에 지금의 안성과 직산은 신라의 땅이었으며, 직산과 천안 사이에서 상당기간 백제와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경덕왕 16년(759) 지방관제를 개편하는데 내혜홀을 백성군, 개차산군을 개산군, 사복홀을 적성현으로 지명을 바꾸었다. 그리고 백성군은 사산현과 적성현을, 개산군은 음죽현(이천시 설성)을 속현으로 거느렸다. 이들 세 행정구역의 치소(중심지)는 백성군이 비봉산성, 개산군이 죽주산성, 적성현이 무한성 남쪽 산록에 두었다.

고려 태조 23년(940)에 전국의 지명이 다시 한번 바뀌었는데 백성군은 안성, 개산군은 죽주, 적성현은 양성으로 바뀌었다. 안성은 고려 현종 9년 수원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천안부로 이속하였으며, 명종 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종 13년에 다시 경기도로 이속하였며, 1895년 고종 32년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군으로 하고 충청도 공주부에 두었다.

죽주는 고려 성종 14년에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 8년에 폐하였고, 현종 9년에 광주 임내에 붙였다. 조선 태종 13년에 죽산현감을 두었다. 다른 명칭으로는 음평(陰平) 또는 연창(延昌)이라고 하였다. 세종 때에는 청주에 예속되었다. 중종 38년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 시켰다가 선조 17년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29년에 다시 승격시켰다. 이후 1895년 고종 32년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죽산군으로 하고 충청도 충주부에 두었다.

양성은 사파을(沙巴乙)이라고도 하는데, 고려 현종 9년에 수원에 붙였다가 명종 5년에 감무를 두고, 조선 태종 13년에 현감을 두었다. 이후 1895년 고종 32년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양성군으로 하고 충청도 공주부에 두었다.

1895년 23부제 중심의 지방 제도 개편 이후 1896년 8월 조선에서는 23부제를 폐지하고 8도를 13도로 세분하여 그 아래 7부, 1목, 331개 군을 두는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때 안성지역은 안성군, 죽산군, 양성군으로 편제되며 경기도로 이속되었다.

1914년 4월 1일 일제는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되었는데 안성군, 죽산군, 양성군을 합하여 안성군이라 칭하고 읍내면에 군청을 두고 12개 면을 두어 현재 안성의 원형이 되었다. 당시 고

삼면은 용인군 소속이었는데 1963년에 안성으로 이속되었다. 읍내면은 도시발달에 따라 1931년 안성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37년 안성읍으로 승격되었다. 이는 경기도에서는 수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어 1998년에는 안성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른다.

시 대	명 칭 변 화		
	안성지역	죽산지역	양성지역
고구려	내혜홀	개차산군	사복홀
통일신라	백성군	개산군	적성현
고려	안성군	죽 주 (음평 또는 연창이라 함)	양성현 (사파을이라고도 함)
	현종 9년 수원에 두었다 후에 천안에 옮김 명종2년 감무를 둠	성종 14년 단련사를 둠 현종9년 광주에 둠 명종2년 감무를 둠	현종 9년 수원에 둠 명종5년 감무를 둠
조선	태종 13년 경기도로 옮김 고종 32년 안성군으로 함	태종 13년 죽산현으로 함 세종 16년 경기도로 옮김 중종 38년 도호부 승격 고종 32년 죽산군으로 함	태종 13년 현감을 둠 고종 32년 양성군으로 함
근대	1914년 4월 1일 안성, 죽산, 양성 3군을 합하여 안성군이라 함 1937년 7월 1일 읍내면을 안성읍으로 승격		
현대	1998년 4월 1일 안성군을 안성시로 승격		

2. 불교문화가 번성한 안성

안성은 고려시대부터 불교문화가 발달한 고장이다. 안성의 불교문화는 죽산지역이 중심이지만 안성 전역에서 발전하였다. 조선시대 기록에 나오는 사찰을 살펴보면 봉업사, 가섭사, 금강사, 지통사, 장광사 등 26개 이상의 절이 있었으나, 이 가운데 칠장사, 청룡사, 석남사, 청원사, 운수암 만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봉업사는 고려 태조 왕건의 초상화를 모셔두고 왕실에서 관리하던 거대한 사찰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없어졌고 지금은 오층석탑과 삼층석탑, 당간지주, 불상만이 남아 과거의 화려했던 대사찰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문화의 발달을 확연히 볼 수 있는 곳은 단연 죽산지역이다. 죽산지역은 불교문화가 번성하여 제2의 경주라는 말까지 나온다. 봉업사지와 칠장사를 비롯하여 산과 마을 안, 길가 곳곳에 탑, 불상, 절터가 남아 있다. 이밖에도 안성시내에는 탑부재와 불상을 모아놓은 안성공원과 도기동삼층석탑, 아양미륵이라고 불리는 아양동석불입상과 아양동보살입상 등이 있다.

대덕면 굴암사는 고려시대의 마애여래불이 2구가 있어 그 역사를 짐작케 한다. 미양면 용화사, 고삼면 신창리삼층석탑, 양성면 석조여래입상, 일죽면 선유동마애불사존불상, 삼죽면 기솔리석불입상, 서운면의 북산리석조여래입상 등 곳곳에 불상과 탑이 있는 안성은 불교문화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성의 불교문화는 미륵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륵불은 총 15구로 전국에서 미륵불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으로 꼽힌다. 삼죽면 기솔리의 쌍미륵이라고 불리는 기솔리석불입상을 포함하여, 태평미륵이라고 불리는 죽산면 매산리석불입상 등 그 크기가 경기도에서는 보기 드문 거대불을 비롯하여 대덕면 대농리미륵, 미양면 용화사미륵 등 아기자기한 불상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 있다.

(1) 봉업사지

봉업사지는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고려시대 절터이다. 봉업사는 양주 회암사, 여주 고달사와 더불어 고려시대 경기도 3대 사찰로 꼽히는 거대 사찰이다. 고려사에는 고려 태조 왕건의 어진을 이곳에 봉안하였는데, 공민왕 12년(1363)에 임금이 청주를 떠나 이곳에 들러 태조의 어진에 알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임금의 어진, 특히 고려를 개국한 태조 왕건의 어진을 봉안한 사찰은 왕실에서 관할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찰이라는 의미이다. 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이때 이미 절이 없어지고 탑만 남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봉업사는 1363년에서 1530년 사이에 폐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봉업사지

보물 제435호 안성봉업사지 5층석탑

경기도박물관의 3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화차사'라는 절을 고려 광종 때인 963년과 967년에 새로 고쳐 짓고, 이 무렵 봉업사란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확인되었다. 봉업사를 중심으

로 죽산시내에는 관음당의 장명사, 매산리의 미륵당, 비봉산에는 장광사, 지통사, 만선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남아있지 않다.

봉업사지에는 보물 제435호 죽산리오층석탑,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8호 죽산리삼층석탑, 경기도유형문화재 제89호 봉업사지 당간지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7호 죽산리석불입상 등의 문화재가 있으며, 보물 제983호 봉업사지 석불입상은 현재 칠장사에 옮겨져 있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89호
안성죽산리당간지주

(2) 칠장사

칠장사는 죽산면 칠장리에 위치한 절로서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고려시대인 1014년 혜소국사에 의하여 크게 중수되었으며, 국사가 입적한지 6년 후인 1060년 왕명으로 혜소국사비와 구층사리탑을 만들어 현재의 비석이 있는 곳에 세웠다. 지금은 혜소국사비만이 남아있고 구층사리탑은 남아 있지 않다.

1623년 인목대비는 광해군에 의하여 희생된 아버지 김제남과 아들 영창대군을 위하여 칠장사를 왕실에서 관할하는 원당으로 삼고 인목왕후어필칠언시(보물 1627호), 금광명최승왕경을 남겼으나 금광명최승왕경은 현재 동국대박물관에 있다.

칠장사 대웅전과 죽림리 석탑

칠장사는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역조실록을 보관했던 장소이다. 고려의 역조실록은 몽고와 같은 북방의 침입을 피해 가야산 해인사에 보관하다가 왜구의 침입으로 경북 선산의 득익사로 옮긴 후 다시 충주 개천사로 옮겼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이 점점 북상함에 따라 충주마저 위험해지자 1383년 죽산 칠장사로 옮겼다. 1390년에는 서해를 통해 죽산까지 왜구들이 빈번히 출몰하니 다시 충주 개천사로 옮겼다가 세종 때에 고려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모두 서울로 가져갔다.

칠장사 입구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제 제39호로 지정된 철당간이 있다. 당간은 보통 나무로 되어 있어 세월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나 칠장사 당간은 쇠로 되어 있어 아직도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원래는 28마디였으나 지금은 14마디 밖에 남아있지 않다. 우리나라에 철당간은 청주의 용두사지와 계룡산 갑사, 그리고 칠장사 이 세 군데만 남아있다.

칠장사 당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9호)

칠장사 사천왕문(四天王門)에는 소조사천왕상이 있다. 소조란 진흙으로 만들었단 말로서, 흙으로 만든 사천왕상이란 뜻이다. 사천왕문 좌우로 2구씩 봉안되어 각기 칼, 창, 비파 등의 물건을 들고 칠장사를 지키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유일한 소조사천왕상으로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되어 있다.

1) 암행어사 박문수(1691~1756)의 과거급제 사연

칠장사에는 어사 박문수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온다. 어느 날 득도한 일곱 도적이 신통력으로 칠장사의 앞날을 내다보니 미래에는 칠장사가 쇠락할 것이 내다보였다. 이를 안타까워하여 일곱 나한이 된 일곱 도적은 신도들의 섬김을 받으며 수 백 년을 기다렸다.

칠장사 나한전

조선후기 천안의 박문수가 과거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가는 길에 칠장사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 나한전에 유과를 올리고 불공을 드린 후 잠을 자는데 꿈에 나한이 나타나서 과거시험의 문제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나한은 총 8구의 답안 중 7구를 알려주고 나머지 한 구는 알려주지 않았다. 다음날 박문수는 과거시험 보러 가는 내내 꿈속에서 가르쳐준 글과 마지막 싯구를 생각하며 한양으로 갔다. 시험에는 꿈에서 가르쳐준 것 그대로 시제(詩題)가 나왔고 당연히 장원급제를 하였다. 그것이 유명한 '몽중등과시(夢中登科詩)' 이다. 지금도 입시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과나 사탕을 올리고 합격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린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낙조(落照)

落照吐紅掛碧山(낙조토홍괘벽산)
떨어져 비치는 것이 붉은 것을 토해 푸른산에 걸려 있고

寒鴉尺盡白雲間(한아척진백운간)
차가운 까마귀는 흰 구름 사이로 하늘에 닿을 듯 하네

問津行客鞭應急(문진행객편응급)
나루를 묻는 나그네의 채찍은 응당 급하고

尋寺歸僧杖不閑(심사귀승장불한)
절을 찾아 돌아가는 스님은 지팡이가 한가롭지 않네

放牧原頭牛帶影(방목원두우대영)
놓아 먹이는 초원의 언덕에 소 그림자가 드리우고

望夫臺上妾低鬟(망부대상첩저환)
댓돌위에서 서방을 기다리는 아낙의 머리굽이가 낮더라

蒼煙枯木溪南里(창연고목계남리)
저녁 짓는 시내남쪽 마을에는 푸른연기가 서려 있고

短髮樵童弄笛還(단발초동농적환)
떠꺼머리 초동이 풀 피리를 불며 돌아오네

2) 임꺽정과 갖바치스님

칠장사는 조선 명종 때의 의적 임꺽정이 스승으로 모셨던 갖바치 스님 병해대사가 머물렀던 사찰로 유명하다. 조선왕조실록이나 기타 고문헌에는 이와 관련하여 '임꺽정은 양주 백정이다', '황해도 구월산에 은거하였다', '임꺽정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의 형인 가도치였다' 등 단편적인 기록이 있을 뿐 자세한 기록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임꺽정 관련 내용은 벽초 홍명희가 1928~1939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소설 임꺽정에 있는 내용이다. 갖바치는 백정 출신으로 칠장사에 은둔해 있으면서 수행을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생불이라 부르며 존경하였다. 황해도 구월산에서 있던 임꺽정이 다른 여섯 명의 도적과 함께 평소 스승으로 모시던 칠장사 병해스님을 찾아 왔으나 스님께서는 입적한지 42일이 지난 후였다. 스님의 영전에서 각자 팔뚝에 피를 내어 7인의 의형제를 맺었다.

임꺽정 무리들은 의형제를 맺기 위하여 스님이 살아계실 때 목불을 조성하려고 보관한 나무에, 베 3필을 주고 불상을 깎게 하여 칠장사에 보관했는데 이것이 바로 '꺽정불'이라고 하는 목불이다. 지금도 칠장사에는 꺽정불이라고 불리는 목불이 있는데 이 불상의 바닥면에는 삼베에 '봉안임거정(奉安林巨正)'이라고 쓴 글이 붙어 있다.

칠장사 꺽정불

칠장사 꺽정불 바닥

(3) 청룡사

청룡사는 서운면 청룡리에 있는 사찰로 1265년(고려 원종 6) 명본국사가 창건하였다. 창건 당시에는 대장암이라 하였으나 1364년(공민왕 13) 나옹화상이 크게 중창하고 청룡사로 고쳐 불렀다. 청룡사라는 이름은 나옹화상이 불도를 일으킬 절터를 찾아다니다가 이곳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청룡을 보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청룡사 전경

절 안에는 대웅전, 관음전, 관음청향각, 명부전 등의 전각이 있고, 대웅전 앞에는 명본국사가 세웠다는 삼층석탑이 있다. 대웅전은 다포계의 팔작집으로 고려말 공민왕 때에 크게 중창하고 조선후기에 다시 지은 것으로, 조선 후기의 기법과 양식을 잘 보존하여 보물 제823호로 지정되었다. 청룡사에서 유명한 것은 자연미를 살린 기둥이다. 구불구불한 아름드리나무를 껍질만 벗긴 채 본래의 나무결을 그대로 살려 기둥으로 세웠다. 사람이 만드는 건축물에 최대한 자연미를 살린 우리나라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청룡사는 공양왕의 초상화를 봉안하다가 세종 19년(1437) 세종의 명에 의하여 고양으로 옮겼고, 후에는 인평대군의 초상화를 모시고 왕실의 태평을 비는 원찰(願刹)로 삼았다. 또 청룡사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남사당패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이들은 청룡사 인근 불당골에서 겨울을 지낸 후 봄부터 가을까지 청룡사에서 준 신표를 들고 안성장터를 비롯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희를 팔며 생활했다.

청룡사 대웅전(보물 824호)

청룡사 동종(보물 제11-4호)

대웅전 안에는 1674년(현종 16)에 만든 800근의 청동종이 있는데 보물 제11-4호로 지정되었다. 이밖에 보물 제1257호 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302호 청룡사감로탱, 경기도문화재자료 제59호 청룡사삼층석탑,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24호 청룡사사적비,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70호 안성청룡사금동관음보살좌상 등의 문화재가 있다.

(4) 석남사

석남사는 금광면 상중리 서운산 자락에 있는 사찰로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졌고 고려 초기 혜거국사가 중창하였다고 전해진다. 조선 초기 숭유억불 정책의 하나로, 전국에 있는 사찰들을 통폐합할 때 안성을 대표하는 자복사로 선정할 만큼 명찰이었으며, 1456년 세조가 친필 교지를 내려 석남사 승려들의 부역을 면제해 주었던 사찰이기도 하다.

석남사 전경

석남사에는 1562년 건립한 보물 823호 영산전이 있는데 영산전은 원래 석가모니불상과 그 생애를 여덟 가지로 나누어 그린 탱화를 모신 곳이었으나 현재 그림은 남아있지 않다.

임진왜란 때 영산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버렸으나 효종 때(재위 1649~1659) 석왕사의 해원이 중수하여 사세를 확장하였으며, 1732년(영조 8)에 다시 중수하였다. 1637년 석남사에 머물고 있던 병사를 용인 광교산으로 이동토록 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병자호란 때는 군대가 주둔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석남사 영산전(보물 제832호)

석남사마애여래입상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09호)

규모는 전면 3칸·측면 2칸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다포 양식인데, 밖으로 뻗쳐 나온 재료의 끝이 짧고 약간 밑으로 처진 곡선을 이루고 있다. 튼튼하게 균형 잡힌 모습을 이루고 있으며 조선 초에서 중기 사이의 건축 양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08호 석남사대웅전이 있으며, 뒤쪽

계곡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대한 바위에 불상을 새겨놓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9호 석남사마애여래입상이 있다.

> 자복사(資福寺) : 조선 시대 국가의 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정책적으로 지정하였던 절로 각 종파별로 나누어 지정하였다. 석남사는 당시 조계종으로 안성을 대표하는 사찰로 꼽혀 사세와 위상을 짐작케 해 준다.

(5) 청원사

원곡면 성은리에 자리 잡은 청원사는 고려시대의 사찰이다. 청원사가 자리한 천덕산은 병자호란 때 의병 천여명이 은신하면서 목숨을 구했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청원사는 산골짜기 언덕 안으로 늘 푸른 안개가 끼는 데서 연유한 것이라 전한다. "옛날 청원사에서 불도를 닦던 스님이 명절이 되자 팥죽을 쑤어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하였는데, 음식을 해 먹은지가 너무 오래되어 아궁이에 불을 피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산을 내려가 마을에서 불씨를 얻어 절에 돌아와 대웅전에 들어갔더니 벌써 부처님의 입에 팥죽이 묻어 있었다."는 일화가 구전되고 있다.

청원사 칠층석탑 및 대웅전

대웅전의 삼존불 가운데 주존불은 종이로 만든 지불이다. 낙산사나 청량사 등에도 지불이 있지만 청원사 지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 이 불상에서는 아주 귀중한 문화재가 출토되었다. 개금불사(불상의 표면 금칠을 다시 하

는 것)를 하다가 출토된 여러 가지 유물에서 고려 충렬왕 6년(1280) 국왕이 국태민안을 위하여 발원한 사경과 묵서가 여러 권 발견되었다. 보물 제740호로 지정된 감지은니보살선계경,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등 불교사 연구에 아주 중요한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보물 제740호 감지은니보살선계경

그밖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16호 청원사칠층석탑,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74호 청원사대웅전 등의 문화재가 있다.

청원사 지불

(6) 미륵의 고장 안성

안성은 전국적으로 미륵이 많기로 유명하여 미륵의 고장이라고도 불린다. 삼죽면 기솔리석불입상, 죽산면의 매산리석불입상처럼 거대불인 경우도 있고, 대덕면 대농리 석불입상, 용화사 석조입상처럼 작은 불상도 있다. 안성 시내의 아양동 석불입상처럼 시내에 있어 마을 주민들의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안성 미륵의 특징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조각한 것이 아닌 불상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투박한 솜씨에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단순화시켜 얼굴모습도 아주 친근해 보인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미륵은 죽산 미륵당의 매산리석불입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7호)과 일명 쌍미륵이라고도 불리는 기솔리 석불입상이다. 매산리석불입상은 고려시대 불상으로 태평원이 있던 곳에 있어 태평미륵이라고도 한다. 태평미륵이 세워진 죽산면은 몽고군과의 전쟁에서 송문주장군이 승리를 하였던 곳이다. 지역에서는 송문주장군의 우국충정을 추모하고 명복을 빌며,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 태평미륵을 건립하였다는 말도 전해진다.

매산리 석불입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7호)

통일신라 말기 신라 47대 헌안왕의 아들로 태어난 궁예는 외가에서 5월 5일에 태어났는데 천문관이 '오'자가 거듭된 중오(重五)일에 태어나 불길하다고 하여, 왕이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사자가 아기를 포대기 속에서 꺼내어 누각 밑으로 던졌을 때 젖을 먹이던 유모가 몰래 받다가 손으로 눈을 찔러 한쪽 눈이 멀었다. 이후 성년이 된 891년 죽주의 초적 기훤에게 의탁하였으나 좋은 대접을 해 주지 않자 이듬해 기훤의 부하인 원회·신훤 등과 결탁하여 원주의 양길에게 간 뒤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삼죽면 국사암에는 삼죽기솔리국사암삼존불이 있는데 일명 궁예미륵이라고 한다. 궁예는 스스로 미륵의 화신이라고 주장하며 미륵신앙을 정치이념으로 삼아 태평성대의 이상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궁예가 죽산에 머문 기간은 비록 1년 남짓이었지만 미륵부처의 출현을 바랐던 안성 사람들에게 남긴 인상은 매우 컸을 것이다. 이에 마을에서는 불상을 세우고 궁예미륵으로 모시고 있다.

궁예미륵

신라말기부터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지방 호족들의 쟁투가 일어나면서 일반 민중들은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때 민중들은 어려운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부처의 출현을 기대하였다.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한 안성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 큰 혼란을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미륵부처에 대한 갈망은 더욱 강해졌기에 곳곳에 미륵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염원했던 것이다.

아양미륵

기솔리 쌍미륵

미륵이란?

석가모니의 뒤를 이어 57억 6천만년 후에 세상에 출현하여 석가모니불이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이다. 도솔천의 내원궁에 보살로 있다가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고 중생들을 구제 할 것이라고 석가모니불이 예언하였다. 미륵불상이 봉안된 불전을 용화전이라고 부른다.

3. 외적을 막아낸 안성 사람들

(1) 몽고군을 물리친 신명 송문주 장군

몽고가 고려를 처음으로 침입한 것은 고종 18년(1231)이다. 2차 침입(1232)은 최씨무신정권이 강화천도를 단행한 가운데 전개되었다. 죽주산성 전투는 3차 침입 때 있었다. 살리타이의 사망으로 퇴각하였던 몽고군은 고종 22년(1235) 다시 침입하였다. 3차 침입은 살리타이의 사망에 대한 보복적이 성격을 띠고 있어 백성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

고려시대의 죽주는 개경에서 충주를 거쳐 경상도지방으로 내려가는 교통 및 군사의 요충지였다. 따라서 최씨무신정권도 죽주의 중요성 때문에 대몽항전의 경험이 있는 인물을 방호별감으로 파견하여 방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죽주산성 전투를 이끈 인물은 당시 죽주방호별감 송문주였다.

송문주 장군은 몽고의 1차 침입 때 박서 장군이 이끌었던 귀주성 전투에서 몽고를 격퇴한 적이 있었다. 그는 몽고군이 죽주근처에 이르자 백성들을 죽주산성에 들어가게 한 뒤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조선 초기의 역사서 『고려사절요』에는 죽주성에서 있었던 전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몽고군사가 죽주에 이르러 항복하라고 타이르므로 성안의 군사가 출격하여 쫓아 보냈더니, 다시 와서 포를 가지고 성의 사면을 공격하여 성문이 포에 맞아 무너졌다. 성안에서도 포로써 그들을 역공격하니 몽고군사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또 인유(人油)·소나무 홰·쑥풀 등으로 불을 놓아 공격하므로 성안의 군사가 일시에 문을 열고 출전하니, 몽고군사 가운데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몽고군사가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였지만 무릇 15일 동안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였고, 공격에 사용하던 병기들을 불살라 버린 뒤 물러갔다."

일제 강점기의 죽주산성

이렇듯 용맹하고 신출귀몰한 전술로 몽고군을 격퇴하자 성안의 백성들은 송문주 장군을 '신명(神明)'이라고 우러러보았다. 몽고군을 물리친 공으로 나라에서는 좌우위장군(左右衛將軍)에 임명하였고, 후에 장군이 세상을 뜨자 죽주민들은 성안에 사당을 세워 지금까지 제를 올리며 그 뜻을 기리고 있다.

하루는 적이 성문을 향하여 불을 지르니 그 불길이 매우 치열하였다. 송문주가 성 위에 올라 물을 내리 부었으나 붓는 대로 불은 더욱 맹렬하여 도저히 끌 수가 없었다. 성중이 모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어느 늙은 군사가 말하기를, "전에 들으니, 몽고에서는 죽은 사람의 고기로 기름을 짜 불을 놓는데 그 기름은 물을 부을수록 불이 더 일어난다고 한다. 지금 이 불은 반드시 사람의 기름을 성문에 뿌린 것이리라." 하므로, 드디어 그릇으로 흙을 담아다가 위에서부터 내리치니 불이 그만 꺼지고 말았다.

정약용 『목민심서』

(2) 홍건적과 극적루(克敵樓)

홍건적은 원나라 말기에 중국에서 일어난 농민반란군이다. 이들의 중심세력은 백련교와 미륵교 신자들로 머리에 붉은 천조각을 둘렀기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361년 고려의 수도인 송도(현 개성)가 함락되고 공민왕이 피난가는 것을 본 경기도의 30여 개 고을에서는 수원을 필두로 풍문만 듣고도 항복하였다. 심지어 공복을 갖추고 나가서 맞이하기도 한 수령이 있다고 하니 백성들로서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성에서 만은 달랐다. 거짓 항복하는 체하고 적에게 술을 먹이고 괴수 6인의 목을 베어 전세를 역전시켜 그 공으로 이듬해 현에서 지군사(知郡事)로 승격되고, 수원의 양량·감미탄·마전·신곡 등 네 부곡을 할애 받았다.(그런데 얼마 후 안성 출신인 찬성사 김용이 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다시 돌려주었다. 양량은 지금의 용인시 양지이고, 마전은 삼죽면 마전리이나 감미탄과 신곡은 어디인지 확실치 않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이와 관련한 일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공민왕(恭愍王) 10년 신축에 홍건적이 송도(松都)에 침입하여, 임금이 남쪽으로 순행하니, 적이 선봉을 보내어 항복하기를 권하매, 양광도(楊廣道)의 주군(州郡)이 감히 그 선봉을 꺾지 못하였는데, 오직 안성 사람들이 거짓 항복하여 음식을 차려 놓고 적군을 먹이다가, 그 취한 틈을 타서 괴수 6인을 베니, 적군이 이로 말미암아 감히 남하(南下)하지 못하였다.

이듬해 신임 군수 신인도가 발령을 받아 그 뜻을 기리고자 누각을 지었는데 36년 후에 극적루(克敵樓)라고 이름을 붙이고 만세에 충의를 권장하는 표본으로 삼았다. 현재 누각은 없어지고 안성초등학교에 그 자리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에 안성시에서는 봉산로타리에 극적루를 복원하여 그 뜻을 기리고 있다.

복원한 극적루

(3) 고추분말을 적에게 날린 홍(洪)나비(蝶) 장군

안성시 미양면 산 87-1번지에는 홍계남장군 고루비(洪季男將軍 古壘碑)가 있다. '고루비'라는 특이한 이름의 비석이다. 임진왜란 때 홍계남 장군이 이곳에 진대를 쌓고 왜적을 무찌른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세운 비석의 이름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날 때 안성에서도 역시 의병이 일어났다.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양반출신 충의위(忠義衛) 홍언수(이명 자수)와 그의 아들인 홍계남, 홍계남의 외사촌인 이덕남 등이었다. 홍언수는 향촌에서 글을 읽는 선비였고, 그의 아들 홍계남은 관기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홍계남은 일찍이 말 타고 활쏘기에 출중하여 금군(禁軍)에 들어갔다.

홍계남 장군은 의병을 모아 덕곡리 앞산에 성을 쌓아 우성산이라 하고 이덕남 장군은 서운산 정상에 성을 쌓고 좌성산이라 칭하여 안성과 양성의 의병을 소집하여 왜적을 물리쳤다. 안성과 진천의 경계에 있는 엽둔령은 요충지인데 홍계남 장군이 방어한 공으로 적이 그 령을 넘지 못하였다. 적이 죽산, 양지, 용인에 세력을 뻗쳐서

세 개의 큰 진을 치니, 장군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오가며 공격하여 적의 형세가 크게 꺾여 백성들이 모두 편안히 지낼 수 있었다.

하루는 경주에 진을 쳤는데, 적이 갑자기 경주에 들어와 남녀 오천여명을 약탈해 가니 장군이 홀로 분연히 성내에 말하기를 "어찌 차마 서서 바라보기만 하고 가서 구원하지 않겠는가"하고 마침내 반격해서 모두 탈환하니 경주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고 고루비에 밝히고 있다.

34세에 전투에서 전사 하였는데 장군이 죽은지 140여년 된 1745년에 안성사람들이 장군의 공을 잊지 못하고 그가 싸우던 지역에 비석을 세우고 그 공적을 기록한 것이 이 고루비이다. 이와 관련하여 1925년의 안성기략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 되어 있다.

"선조 왜란시에 서운면 덕곡리에 홍계남 이덕남이 의병장이 되어 계남은 서운산정에 성을 쌓아 좌성산이라 칭하고 덕남은 덕곡리 앞산에 성을 쌓아 우성산이라 칭하여 안성양성의 의병을 모집하여 난에 임하였는데, 계남은 지략이 비범하여 전투를 맞이함에 전략이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나온 적이 많았는데 전설에 의하면 고추의 분말을 바람에 날리어 적을 막았다하며, 용략이 나비(蝶)가 나는 것과 같다고 하여 홍접(洪蝶) 또는 홍비(洪飛)장군이라 칭하였다 하며 · · · "

고추분말을 날리어 적을 막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전설의 신통함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흔히 고추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임진왜란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고추가 있었던 것이 확인 되었다. 결국 전설이 우리의 상식을 뒤집고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고루비와 안성기략에 좌성산과 우성산을 쌓은 사람이 반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루비의 기록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홍계남 장군 고루비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1호)

(4) 2일간의 해방을 쟁취한 원곡·양성민들

일제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재판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피고들의 선동에 응하여 황해도 수안군,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및 원곡면 등에서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야기케 함에 이르게 한 사실로써…"

1919년 일어난 3·1만세운동은 서울에서 시작된 이후 점차 지방 대도시, 농촌지역 순으로 확산되었다. 경기도 지역은 처음 시위가 발생한 후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에 집중적이고도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안성지역에서는 당시 읍내면, 이죽면, 양성면 등 3개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안성에서의 시위는 3월 11일 읍내면에서 시작되었다. 이때의 시위는 50여 명이 참가하는 소규모였기 때문에 안성 전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본격적인 시위는 3월 말경에 시작되었다. 3월 30일에 일어난 읍내면 동리, 서리, 장기리의 시위는 참여 군중만 해도 5~6백명이나 되었으며, 시위양상도 면사무소 유리창을 부수는 등 과격했다. 그리고 기생들이 앞장서기도 하였다.

3월 30일 시위 후 큰 변화는 기존의 농민, 노동자들 외에도 안성 상인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상인들의 참여로 시위규모는 더욱 확대되었고 격렬해져 3월 31일에서 4월 2일까지 연인원 4천 명이 넘는 시위가 읍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전국 3대 실력항쟁지로 널리 알려진 원곡, 양성지역의 3·1운동은 3월 11일 양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되었다. 시위는 3월 말경에 마을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다가, 4월 1일 저녁 8시경 원곡면민 1천여 명이 원곡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일제히 전개하였다. 이들은 면사무소로 몰려가 면장과 면서기에게 강제로 만세를 부르게 하고, 태극기를 쥐어 앞장세워 만세고개를 넘어갔다.

마침 만세시위를 하고 해산하려던 양성의 시위대와 연합하여 경찰주재소, 면사무소, 우편소에 투석하고 방화하였으며, 일본 수비대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선과 전화선을 끊고 다리를 파괴하였다. 다음 날에는 더욱 과격해져 원곡면사무소를 방화하고 군대의 출동을 차단하기 위해 평택으로 몰려가 경부선 철도를 끊으려고도 하였다. 이 시위로 177명이 실형이 투옥되었으며, 26명이 순국하였다.

원곡·양성의 면민 2,000명이 모여 시위를 하던 이 고개는 원래는 성은고개였는데,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과 뜻을 기리고 후세에 널리 전달하기 위하여 1991년 건설부 고시에 의거 만세고개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2001년 안성3·1운동기념관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일제에 싸우고 희생한 이름 없는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뜻을 전달하고 있다.

4. 천년의 기술 안성유기

'유기'란 좁은 의미로는 놋쇠로 만든 그릇을 가리키는 말이며, 넓은 의미로는 동을 기본으로 비철금속의 합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기물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놋쇠는 구리 78%에 주석 22%, 즉 동 1근(600g)에 주석 4냥 반(168.7g)을 배합한 것으로, 유철이라고도 말한다. 이 배합 비율은 방짜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배합 비율이며, 주물유기를 만들 때는 그 비율이 약간씩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기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동과 주석의 합금이라는 의미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동기 시대의 청동 제품은 일상생활에까지 보편화된 것이 아니라 부족장이나 제사장 등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나타내거나 무덤에 부장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 후 철기 시대를 거쳐 삼국 시대에 이르러 사용이 확대되었다. 삼국 시대에는 불상, 범종, 반자 등 주로 불교 용품을 청동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경덕왕이 철유전(鐵鍮典)을 축야방(築冶房)으로 고쳤다가 후에 다시 철유전으로 돌렸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 시대에는 철과 유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 기구까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육두품의 복장을 보면 띠는 검은 무소뿔, 놋쇠 및 철로 장식하고, 장화 끈은 검은 무소뿔, 철 및 구리로 장식했다. 따라서 장신구에까지 놋쇠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놋제품을 악기에는 사용하지 않아 지금의 꽹과리와 징과 같은 타악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 신라 시대에는 백률사 약사여래상을 비롯하여 725년의 상원사 동종, 771년의 성덕대왕신종 등 많은 불구들이 남아 있어 그 기술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의 정창원(正倉院)에는 통일 신라의 유기그릇과 수저가 많이 보관되어 있다. 통일 신라의 유기 제품은 일본에까지 이름을 떨칠 정도로 고급품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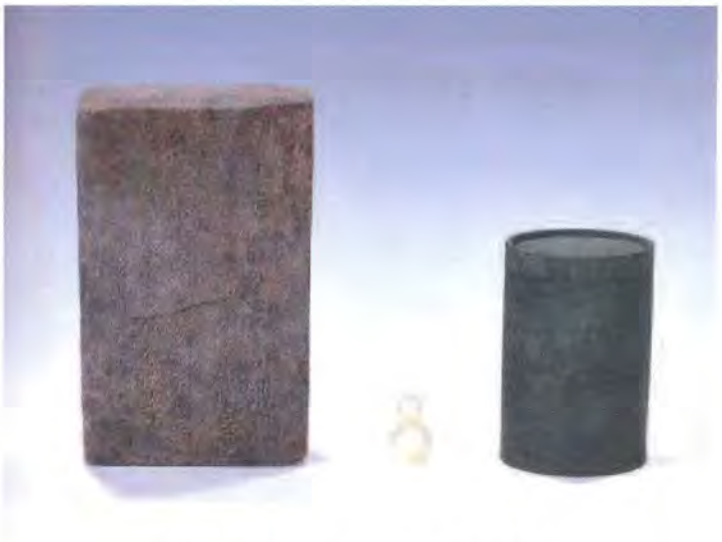
고려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불구뿐 만 아니라 제기, 수저, 밥그릇, 향로, 타구, 명기(明器) 등 생활 용품을 동제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주로 상류층에서 사용했다. 봉업사지를 비롯한 고려 시대의 유구에서 출토되는 놋그릇들은 대부분 그릇이 아주 얇고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정확히 78대 22%인 방짜유기들이다.

유기가 일반 대중까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이며, 18세기 이후에는 일반인에게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19세기 초에 발간된 서유구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를 보면 우리나라 풍습에는 놋그릇을 가장 귀히 여겨 아침, 저녁으로 상 위에 오르는 그릇은 모두 놋 식기를 사용했고, 옛날에는 오직 왕가나 부호의 집에서만 놋그릇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궁벽한 지역의 초가집에도 유기로 된 그릇을 3~4벌씩 사용한다고 기록돼 있다.

또 1800년경 쓰인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통속적으로 놋그릇을 중요시하여 사람들은 반드시 밥, 국, 나물, 고기까지 일체의 식탁 용기로 놋그릇을 사용한다. 심지어는 요강, 세숫대야까지 놋쇠로 만들어 널리 사용한다."라고 하여 이미 보편화되었음을 알려 준다.

조선 시대에 유기로 유명한 곳은 안성을 위시하여 개성, 납청, 구례, 진주, 재령, 은산, 함흥, 운천, 순천, 봉화, 김천 등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단연코 안성 유기가 가장 유명했다. 안성은 유기가 유명하여 '안성맞춤'이라는 속담까지 나올 정도였다.

안성 유기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아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시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다. 안성 유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오래된 것은 죽산의 장명사지 탑지석이다. 장명사지는 관음당이라고 하는 옛날 절터를 말하는데 죽산면의 개인집 마당에 있으며, 이곳에는 현재 파손된 불상이 남아 있다. 1972년 이곳에서 나온 탑지석과 청동원형사리함으로 인하여 장명사지임이 밝혀졌다. 이곳에서 나온 탑지석은 현존하는 고려 시대 탑지석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탑지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명사지 탑지석 및 원통사리함

○四月二十七日國泰人
安願以長命寺五層石塔造立香
徒姓名女後○○○○○○○○
棟梁大行明係佳校慰戶長安帝京金正崔
○○博士禮靈○○○金位等
料色光○師玄肯 鎰匠 只未知

통화 15년(997) 4월 27일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기를 염원하면서 장명사 오층석탑을 세웠다.
향도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
동량 대행명계가교위 호장 안제경, 김정, 최
○○ 박사예령○○○김위등
요색광○사 현긍 유장 지미지

마모가 심해 전체 문구를 해독할 수는 없으나 마지막의 "유장 지미지"라는 글자는 명확히 보인다. 이 탑지석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 초기인 997년에 이미 안성 죽산 지역에 유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유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유장이 당시 무엇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함께 출토된 청동원형사리함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종과 같은 불구류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조선 시대에는 1614년 택당(澤堂) 이식(李植) 선생이 천장과 관련하여 전라도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서 안성의 유점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당시 안성에서는 이미 유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마을이 형성될 정도로 유기 제작이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점이 어딘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15세기 후반 성종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나오는 외공장 소속 유기장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수원과 광주, 양주에 각 1명씩 있지만 안성에는 없었다. 이 말은 관청소속 유기장이 없었다는 말이지 안성에 유기장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명종실록(明宗實錄)』에는 관청의 장인이 모자랄 때는 일반 장인들을 불러 썼다고 기록돼 있으므로, 안성에는 관청 소속 장인은 없었지만 개인적인 상업 활동을 하는 유기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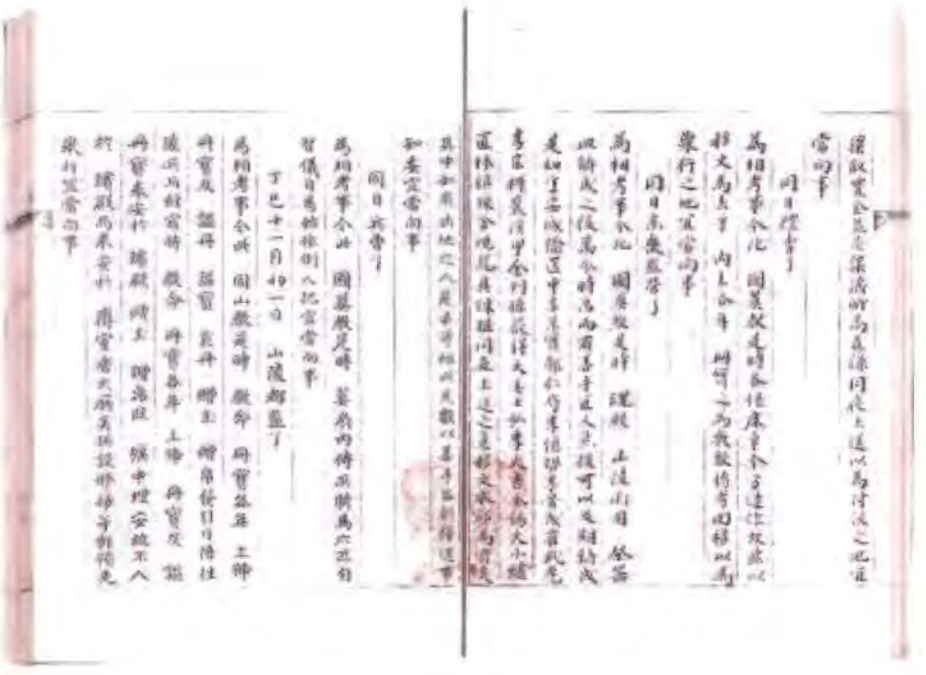
조선 후기에는 중앙 관청에서도 안성 유기의 뛰어남을 인정하여 안성 유기장을 징발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의궤(儀軌)'에 잘 나타난다. 의궤는 조선 시대 왕실과 국가의 행사가 끝난 뒤에 논의, 준비 과정, 의식 절차, 진행, 행사, 논상 등을 기록한 책이다.

1744년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혼례식을 정리한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 안성에 뛰어난 유기장이 많이 있다는 기록과 함께 김태강, 김가노미 등 구체적인 장인의 이름까지 나온다. 또 1857년 순조의 비인 순헌왕후의 장례식을 정리한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에도 안성 유기장의 이름이 나온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18세기 중반에 이미 안성의 유장들이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불려갈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볼 수 있다.

사도세자 가례도감의궤

안성공원에는 많은 비석들을 모아 놓았는데 그중에는 1841년(헌종 7) 안성군수를 지낸 정만교의 선정비가 있다. 이 비석에는 갓점, 연죽점, 숟가락점, 야점, 목수점 등 10여 종의 수공업자 명단이 있는데 그중 하나로 유점(鍮店)이 나온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 당시는 군수의 불망비를 세워줄 정도로 수공업자들의 영향력이 강세였었고 그 중 유기점도 강성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1886년 군수 심헌지 영세불망비는 마모가 심해 비석의 전반적인 내용을 판독하기는 어렵지만 "유주(鍮鑄)"라는 글씨가 보여 안성의 유기장이 이 비석을 세우는 데 어떠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순원왕후 국장도감의궤

서유구의 『임원십육지』 「팔역물산」조에는 안성장의 거래 물품 목록 중 유기를 거론했다. 그러나 이 당시 전국 장시 물목 중 유기가 거래되는 장은 총 81군데로 이것만으로는 특별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 고문헌에서 볼 수 있는 안성 유기 관련 자료는 이 정도이고,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안성 유기 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이상으로 보아 안성에서는 이미 고려시대에 유기장이 존재했고, 17세기 초반에 유기를 전문으로 만드는 마을이 형성될 정도로 유기 산업이 발달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8세기 중반에는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유기장들이 다수 거주하는 유기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고학 자료로 살펴보면 봉업사지를 비롯하여 안성의 고려~조선시대의 여러 고분에서 유기 발, 합, 수저 등 많은 양의 놋 제품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고분에서 놋 제품이 발견되는 예는 전국적으로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유기와 안성을 연결하기는 어렵다.

2004년 죽산면 봉업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동종을 주조했던 주형(鑄型) 시설로 추정되는 터가 발견되었다. 이로 보아 통일 신라에서 고려 시대 사이에 안성에서 이미 동제품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안성유기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품질이 좋아서이다. 1934년 <동아일보>에 안성 유기는 옛날부터 견고하고 미려하며 정교한 특색이 있는 까닭에 전국적으로 환영을 받아 왔다고 하였다. 즉 황해도 등 다른 지역의 유기보다 가공을 한층 더하여 모양이 미려하고 정교하며 견고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안성이 유기로 유명하게 된 데는 우선 판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안성시장, 그리고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서울 반가의 그릇을 주문받아 제작하여 유명해진 유통 부분에 있다.

안성 유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인을 천시하지 않고 장인들을 존중해 주는 안성 특유의 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 안성은 예로부터 갓 수선, 건유혜, 백동연죽, 한지 및 방각본 제작 등과 일제 강점기 분말잉크 생산업이 크게 성행하던 지역으로서 수공업의 발전에 따라 많은 장인들이 활동했다. 그리고 양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직접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는데, 안성 유기 제조 장인들 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또는 실권한 양반들도 있었다. 이처럼 양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유기는 안성에서 만들어 안성장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 상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판매했는데 유기 상인 중에는 여자들이 많았다. 조선 시대의 안성 유기상은 직접 등짐을 지고 전국의 시장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방문 판매를 하였다. 1925년 정관해 선생이 쓴 『관란재일기(觀瀾齋日記)』에는 유기 파는 여자가 집에까지 와

서 판매한다고 기록했는데, 당시 정관해의 집은 용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안성 유기상일 가능성이 높다.

경기 민요인 <건드렁타령>에는 "경기 안성 처녀는 유기 장사로 나간다지, 주발대접 방짜대야 놋요강을 사시래요"라고 하여 처녀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기 장사를 나갔음과 그중에는 방짜 유기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1928년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잡지 『별건곤』 제16~17호, 「팔도 여자 살림살이 평판기」에서는 안성 유기상에 대해 말하길 "안성 여자들은 대개 유기를 남자 보부상과 같이 짊어지고 각지로 돌아다니며 파는데 그 행상인 중에는 종종 미인도 있어 이 세상에 향그러운 이야기 거리를 끼치는 일도 많다"라고 기록했다. 이렇듯 안성 유기 판매상에 여자들이 많은 것도 안성유기의 명성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안성속요》

큰아기 유기장사로 나간다 한닙팔고 두닙팔어 파는 것이 자미라
경기안성 아기 숟가락장사로 나간다 은동걸이 반수저에 깩기숟갈이 격이라
안성유기 반복자 연엽주발은 시집가는 새아씨의 선물감이라
안성가신 반저름(반유혜)은 시집가는 새아씨발에 마침이다
안성유지는 시집가는 새아씨의 빗집(梳入)감에 마침이라

-안성기략(1925), 김태영 저-

1925년 『안성기략』에 전해지는 이 속요에 안성 사람들의 상인 기질이 잘 보인다. '아기'라 함은 흔히 며느리를 일컫는 말인데 큰며느리나 작은며느리 또는 딸들이 장사하러 나가는 것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파는 것을 재미로 여기고 있어 조선 시대 '사농공상'과는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 속요는 일제강점기때만 하더라도 비단 안성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들을 수 있는 노래였다고 한다.

안성 가신(가죽신)

안성공원의 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인들이 모여 군수 선정비도 세워 줄 정도로 그 세력이 사회·경제적으로 막강했고, 군수도 또한 장인 보호에 힘을 쓰는 곳이 안성이었다. 이러한 상공업 문화가 합쳐져서 안성이 전국 최고의 유기 생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유기의 좋은 점으로는 우선 보온성을 꼽는다. 그래서 조선 시대 여름에는 시원한 도자기를, 겨울에는 열전도율이 좋은 유기를 사용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김장철이 되면 광에 넣어 놓은 유기그릇을 꺼내 닦는 것도 역시 보온성 때문이다.

2003년 11월 12일 방영한 KBS 수요기획 <생명의 그릇 방짜>에서는 방짜 유기의 효용성을 보여 주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충남 논산 종가집의 한 종부가 제기로는 모두 유기를 사용하는데, 특히 유기에 거머리가 모두 달라붙는다고 하여 미나리를 씻을 때는 그릇에 유기 수저를 넣고 씻는 사례를 소개했다. 유기가 거머리를 솎아내는데 특효약인 셈이다.

또한 유기는 농약 성분을 감지해 낸다. 무농약 깻잎과 농약 깻잎을 24시간 담아둔 결과 유기에 농약이 감지되었다. O-157균 배양 실험에서는 스테인리스 그릇, 사기그릇, 유기그릇에 O-157균을 넣고 배양했는데 다른 그릇에서는 모두 균이 활발히 증식했지만 유기에 배양한 균은 모두 사멸되었다. 그리고 유기, 사기, 스테인리스 그릇에 일주일 동안 백합을 꽂아 두고 생화의 생육 실험을 하였다. 역시 유기그릇에 담아 놓은 백합이 훨씬 오래 싱싱하게 생존했다. 생장 상태 비교에서 방짜 그릇의 특별한 생명력을 확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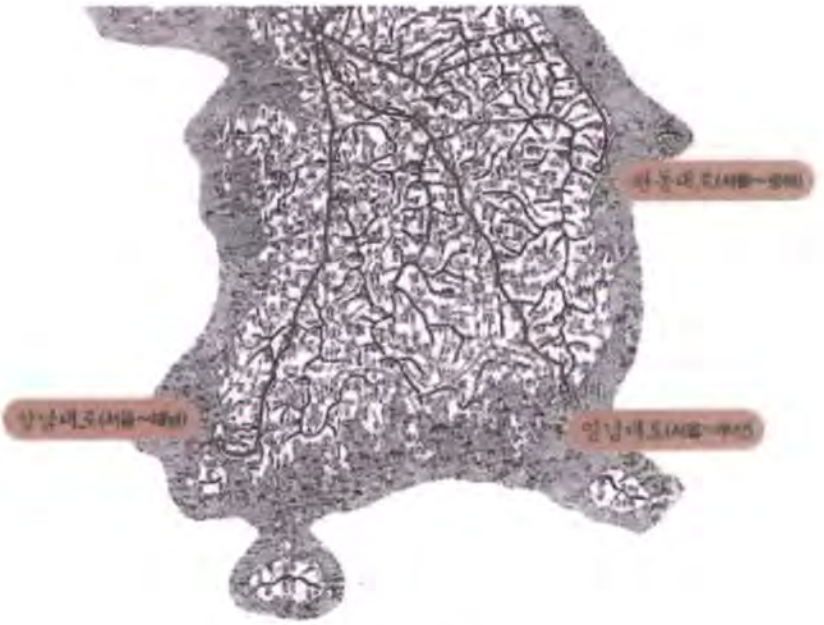
또 예로부터 스님들은 머리를 깎을 때 놋으로 만든 삭도를 사용했다. 무쇠로 만든 칼로 삭발하다가 베면 머리가 덧나는 데 반해 삭도를 사용하여 머리를 깎을 때는 베어도 덧나지 않기 때문이다. 유기의 자정 능력과 나트륨(미네랄) 성분을 확인하기도 했다.

2008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구리를 이용한 비브리오 속균 사멸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족관에 구리 재질인 '방짜판(놋그릇)'을 넣어 40시간 경과 후 확인해 보니 우럭, 광어 등의 아가미, 내장 및 표면에 오염된 장염비브리오균이 99.9% 사멸되었다고 한다. 또 키조개, 가리비, 백합 등 패류의 경우 48시간 경과 후 비브리오균이 99% 억제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실험 결과, 이와 같은 생명의 효과는 유기의 구리에서 나오는 살균력으로 파악되었다. 순 구리로 만든 그릇으로 실험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구리 합금으로 만든 유기제품이 그만큼 인체에 이롭다는 이야기이다.

5. 전조선 3대시장 안성장

안성은 예로부터 장시가 발달하여 연암 박지원은 「허생전(許生傳)」에서 경상, 전라, 충청 3남의 물화가 모여 서울로 이송되는 길목[기호지교 삼남지관구(畿湖之交 三南之綰口)]이라 하였다.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서도 "안성은 경기도와 호서 지방 해협 사이에 위치하여 화물이 수용되고 공인과 상인이 모여들어 서울 이남의 도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여 당시 안성이 교통의 요지이자 동시에 물류 집산지임을 말해 준다.



조선시대 도로망

1703년 『비변사등록』을 보면 안성이 삼남의 요충지로서 공장(工匠)과 장사꾼들이 모여 도적의 소굴이 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안성군수는 무신으로서 병수사(兵水使)를 임명했다고 한다. 또 1747년 『비변사등록』에는 안성시장이 서소문 외 시장 중에서 가장 크고

이로 인해 도적들이 모인다고 기록했다.

1790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채제공이 정조에게 이르길, 수원 근방에 한 달에 시장을 여섯 번 세우고 한 푼이라도 절대 세를 거두지 말고 단지 서로 장사하는 것만을 허락한다면, 사방의 장사치들이 소문을 듣고 구름 떼처럼 모여들어 전주나 안성 못지않은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여 안성시장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

1924년도 안성시장 광경

예전부터 안성시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속담이 전해진다.

> " 두 가지가 더 많이 난다(京城보다 二種이 多出한다)": 안성시장에 매매되는 물화가 많아 경성에서 매매되는 물품보다 두 종류가 많다는 뜻.
>
> "이틀이레 안성장에 팔도물화 벌열": 2일과 7일 안성장에는 팔도의 물건이 벌려져 있다는 뜻 (천자문 뒤풀이 가사 중).

또 1920년 6월 『개벽』 제47호에는 「등하불명의 근기 정형」이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조선 굴지의 시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야말로 중부 조선에서 유명한 시장이다. 바로 전조선 3대 시장(대구, 전주, 안성)의 1이다.

한편 1929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의 시장경제』에는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3대 시장으로 대구, 전주, 평양, 혹은 대구, 김천, 강경, 혹은 대구, 공주, 전주를 칭한다고 하여, 안성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1808년의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경기의 송파장, 안성 읍내장, 교하 공릉장, 은진 강경장, 직산 덕평장, 전주 읍내장, 남원 읍내장, 평창 대화장, 황해도 토산 미천장, 황주 읍내장, 창원 마산포장, 평안도 박천 진두장, 함경도 덕원 원산장이 가장 큰 장이라고 기록했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조선 3대 시장이라는 개념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 나온 말이고 그 이전에는 어느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은 구전에 의한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안성장은 한때 전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였을 것이다.

안성장이 급성장한 것은 조선 중엽 이후이다. 이때 안성은 전라, 충청, 경상 등 삼남 지방에서 한양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여서 시장이 번성하기 유리한 지역이었다. 시장의 번성과 함께 유기장을 비롯한 각종 장인들이 모여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생산하게 되고, 상인들이 모여 그 물건을 판매함으로서 시장이 더욱 번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성에서는 17세기 초반에 이미 유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마을이 형성될 정도로 유기 산업이 발달해 있었으며, 18세기 중반에는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유기장들이 다수 거주하는 유기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들 유기장이 안성에 있었던 때는 지장(紙匠), 혜장(鞋匠), 백동연죽장 등 다른 많은 장인들이 더불어 안성장을 풍성하게 하던 때이다.

반대로 안성장을 번성토록 한 장인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 수원으로 집단 이주하면서 안성장은 쇠퇴하게 된다. 수원 화성이 착공하기도 전인 1791년에 정조는 안성의 공장(工匠) 등 수원의 신읍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2만 냥을 대여해 주라는 등 적극적인 이주 정책을 썼다. 그 후로도 안성의 장인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이 계속 추진되었다. 1792년에는 안성의 지장(紙匠)에게 전례에 따라 4천 냥을 대여해 줄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가 있었다.

거금을 들여 안성의 장인들을 수원으로 이주시키면서 안성시장의 공예품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안성의 유기장, 혜장, 지장, 백동연죽장 등 장인이 줄어들자 안성장은 공예품 산지라는 이점이 점차 줄어들어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수원 시장이 급속히 커지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안성장은 뛰어난 장인들과 궤를 같이하므로, 결국 안성 유기의 번성은 안성장의 번성과 맥을 같이 한다.

6. 안성청룡사와 남사당 바우덕이

(1) 사당의 어원

사당패란 조선시대 서민층의 생활군단(生活群團)에서 자연발생적 또는 자연 발전적으로 생성한 민중놀이 집단으로, 일반적으로 춤과 노래 그리고 각종 기예를 팔며 이 마을, 저 마을 유랑생활을 하는 무리들을 일컫는다. 사당패는 여자들로만 구성된 여사당패와 남자들로만 구성된 남사패가 2종류가 있었다. 처음에는 사당이라고 하면 주로 여사당을 지칭하였으나, 19세기 말 어느 순간 남사당으로 바뀌어 1930년대까지 존속하다가 사라지게 되었다.

사당은 조선중엽 이후 문헌에 등장하는 집단으로, 한자표기는 舍堂, 捨堂, 舍正, 社黨, 舍黨 등 다양하다. 정조 때 이긍익은 《연려실기술》에서 『비구승, 비구니, 우파이, 우파새를 사중(四衆)이라고 일컫는데, 우리나라 풍속에서 우파새를 거사(居士)라고 하고 우파이를 사당(捨堂)이라고 한다』고 했다. 조선중기의 《상촌선생집》에 보면 우파새(優婆塞)는 깨끗하고 믿음이 있는 남자이고, 우파이(優婆夷)는 속세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여자라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사당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1년(1469) "근일에 京外에 남녀노소가 社長이라고 칭하고 혹은 居士라고 칭하는데, · · ·밤낮으로 남녀가 뒤섞여 큰 소리로 북을 치며 가지 않는데가 없사옵니다"
>
> 성종 4년(1473) "근년 이래로 여승의 무리들이 점차 많아지고, 궁벽한 민간과 비밀스러운 땅의 곳곳에 모두 社堂이 있어서 무리들을 긁어모아"
>
> 선조 35년(1602) "난리를 겪은 뒤 사람들이 더욱 괴이한 짓을 좋아하여 남녀간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저마다 居士라고 하면서 옷차림까지 변장하여 북치고 노래하며 요망스런 놀이를 벌이는가 하면 모이기도 하며 흩어지기도 하여 그 종적이 괴이합니다."

40년(1607) "남자는 居士가 되고 여자는 社堂이라 칭하며 본분의 일을 일삼치 않고 승복을 걸치고 걸식하며 서로를 유인하여 그 무리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특정한 남녀노소를 '사장' 또는 '거사'라 칭하기도 하였으며, 여승과 관련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남자를 '거사' 여자를 '사당'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특히 선조 때의 기록을 보면 남자는 '거사' 여자는 '사당' 이라고 하고 승복을 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남녀노소가 모여 북치고 노래하며 요망스런 놀이를 벌인다고 하여 남사당패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변사등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정조20년(1796) "근래 우바의 유희는 그 폐단이 많은데 시속에 소위 거사사당(居士師黨)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도적이며 시장에서 유희하고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유혹하며 마을에 섞여 살며 폐륜아들을 미혹하는 것이 팔도가 동일하지만 삼남이 더욱 심하다."

사당패들의 모양, 구성, 활동내용은 시대와 지역 그리고 연희패들마다 약간씩 달랐다. 같은 사당패라 하더라도 전국의 많은 사당패들이 모두 같은 내용의 연희와 인원을 구성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연 때마다 연희장소 즉 무대의 크기, 또 마을 경제력에 따라 공연인원과 공연 내용에 다양한 변화를 준다. 따라서 연희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엔 다른 내용의 공연이나 다른 단체의 공연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연희를 주 생업으로 삼고 있는 무리들의 명칭을 살펴보면 남·녀 사당패를 비롯하여 솟대쟁이패, 걸립패, 중매구패, 각설이패, 애기장사, 대광대패, 초란이패, 굿중패 등 다양하게 존재했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 명칭의 집단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짐작만 할뿐 명확하게 알 길이 없다.

사당거사가 한량에 돈 따고

사당패가 한량 만나 돈 따는 모양

사당 판놀음 하는 모양

사당거사 판놀음 하는 모양

송석하는 1940년 조선민속 3호에 사당은 당연히 여자라야 하는 것이지만 조선 말기에 이르러 남사당(男社堂)이란 것이 생겨서 여사당(女社堂), 남사당(男社堂)의 명칭이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의 정수사, 안성군 서운면 청룡리의 청룡사, 황해도 구월산, 경남 남해군 고현면 화방사 등을 사당패의 근거지로 꼽았다.

또 이능화는 1927년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에서 사당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남아 있었다. 내가 나이 어릴 때 괴산 고을에서 사당패를 보았다. 牌에는 남녀가 한데 있으니 남자를 男社堂 또는 居士라고 하고, 여자를 女社堂이라고 하며 그 우두머리되는 자를 某甲이라고 했다. 한 某甲의 통솔 밑에 남자가 8명 또는 9명에 여자가 한두 명씩은 있었으니 모두 妙齡의 여자였다.

남자가 여자를 등에 업고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技藝(歌曲과 몸을 놀리는 재주)를 팔고, 몸을 파는 것을 業으로 삼았다. 그 흥행에 있어 남자가 손에 小鼓를 잡고 무대 위에 벌려서고 여자가 마주서서 먼저 노래(時俗의 잡가를 꺼내면 남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서 그 노래를 받는다. 혹 먼저하기도 하고, 혹 위에 하기도 하며, 혹 소고를 두드리기도 하고, 혹 唱을 하기도 한다. 妙技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 청중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돈을 던져서 상을 준다. 혹 동전을 입에 물고 『돈, 돈』 소리를 내면 女社堂이 가서 몸을 바치고 받는 것을 花代(花債 또는 解衣債라고 일컬었다)를 받는다.

이것이 사당패의 영업행위였다. 항간에 전해지는 말로는 사당이라는 것은 寺奴婢에서 비롯되었으며, 안성군의 靑龍寺가 그 본거지라고 한다. 그 때문에 남녀 사당이 중을 대하게 되면 반드시 공손히 禮를 행해서 마치 노비가 上典(우리나라 말에 노비를 하전, 주인을 상전이라고 한다)을 섬기는 것과 같이한다고 했다.

사당패들은 전국의 사당골을 근거지로 삼아 절과 깊은 관련을 맺은 공연 패들로, 남사당과 여사당이 있었다. 남사당, 여사당 공히 거사와 모갑이라는 우두머리가 있어 그들을 관리하였다. 처음에는 사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자였지만 1900년 경 남사당으로 급격히 바뀐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사당패의 근거지 중에서도 청룡사는 사당패의 가장 으뜸이 되는 곳이었다.

(2) 사당패의 분포와 안성 청룡사

사당패는 사찰을 근거지로 하여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송석하는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부의 정수사 부근, 안성군 서운면 청룡리의 청룡사 사당, 황해도 구월산의 사당,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화방사 등을 '사당골'이란 지명을 들어 사당의 본거지로 꼽았다. 그리고 신재효의 박타령에는 京畿 安城 靑龍寺, 嶺南 河東 목골, 咸悅에 成佛菴, 昌平에 대주庵, 潭陽, 玉川, 井邑, 同福, 咸平에 月良寺 등을 사당패의 근거지로 나온다. 이는 비변사등록에 나오는 삼남이 더욱 심하다는 말과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19C 중후반만 해도 이처럼 삼남 여러 곳에 분포하던 사당패들은 20C초에 안성 청룡사를 제외하고는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들이 모두 동시에 사라진 것인지 기록이 없어 추적할 수 없지만 청룡사 이외에 계보가 끊긴 것만은 확실하다.

남사당패로 마지막까지 기록에 남은 안성 청룡사는 예로부터 사당패의 총본산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 및 송석하, 이능화, 백화랑 등 일제 강점기 초기 연구자들의 논문 그리고 사당패의 선소리, 탈춤 대사 등 많은 자료에서 확인된다.

송석하는 안성 청룡사에서는 사당을 양성하여 전국으로 보급한 곳이라고 하였다. 현재도 안성 청룡리에서는 청룡사 옆 사당골을 여덟 사당이 살던 마을이라고 하여 '팔사당골'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마 청룡사에서 평소 애사당을 길러 전국 팔도의 사당패에 공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신재효 「박타령」

小寺 문안이요, 小寺 등은, 京畿 安城 靑龍寺와, 嶺南 河東 목골이며, 全羅道로 議論하면, 咸悅에 成佛菴, 昌平에 대주庵, 潭陽, 玉川, 井邑, 同福, 咸平에 月良寺 여기 저기 있삽다가...

. 백화랑, 없어진 민속 사당패(社堂牌)」, 『朝光』 2권 8호, 1936,
그런데, 이 사당패는 맨 처음에 시작되기를 절(寺)의 노비로서 되었다.
대저 큰 절에는 소위 사노(寺奴) 혹은 사비(寺婢)가 있었다.
그런데, 경기도 안성군의 소속인 청룡사는 이 사노 사비의 본원지였다.

. 李能和, 여사당패」, 『조선해어화사』

항간에 전해지는 말로는 사당이라는 것은 사노비에서 비롯되었으며, 안성군의 청룡사가 그 본거지라고 한다. 그 때문에 남녀 사당이 중을 대하게 되면 반드시 공손히 예를 행해서 마치 노비가 상전(우리나라 말에 노비를 하전, 주인을 상전이라고 한다)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한다고 했다.

라. 송석하, 「社堂考」

全國 各地到處에서 볼 수 있는 寺刹附近의 사당골(Sadangkol)이란 地名이다.(漢字로 쓸 때에는 各樣으로 쓴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例로는 全南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의 一部 淨水寺 附近의 村落은 그들의 根據地였다. 其他 安城郡 瑞雲面 靑龍里의 靑龍寺社堂, 黃海道 九月山의 사당, 慶南 南海郡 古縣面 大○里의 火芳寺(실은 이것은 「중매구」이지만)等 實로 이 方面으로서 본다면 그 例가 許多하다.

청룡사가 사당패의 본거지라는 사실은 사당패들이 부르는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가. 여사당 자탄가 女社堂 自歎歌

한산 세모시로 잔주름 곱게곱게 잡아 입고 안성 청룡사로 사당질 가세.
漢山之細毛施兮　製衣裳而衣之兮. 安城之靑龍寺兮　社堂爲業去兮.

이내 손은 문고리인가　　이놈도 잡고 저놈도 잡네.
儂之手兮　門扇之鐶兮　　此漢彼漢俱摻執兮.

이내 입은 술잔인가　　이놈도 빨고 저놈도 빠네.
儂之口兮　酒巡之盃兮　　此漢彼漢俱親接兮.

이내 배는 나룻배인가　　이놈도 타고 저놈도 타네.
儂之腹兮　津渡之船兮　　此漢彼漢俱搭乘兮.

. 봉산탈춤 제3과장 사당춤(社堂舞)

사당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거사에게 업혀서 혹은 남녀를 타고 등장한다.

○ 받는 소리 : 어데로 가자고 날만 졸라, 어데로 가자고 지부령직신
날만 조리조리 졸졸이 따라서 안성(安城)에 청룡 가자 에에.
—

다. 서도 선소리 산타령 中 경발림

어데로 가자고 날만 졸라 어데로 가지고 기부령 직신
날만 조리 조리 졸 따라서 안성에 청룡 가자 에에
—

라. 서도 선소리 산타령 中 뒷산타령

어디로 가자고 지그렁 직신 날만 조리 조리 졸조리 따라
안성의 청룡 가잔다. 에헤~
—

마. 경기 선소리 산타령 中 놀량

하~아하 아하~ 어~열네로구나 종일가도 안성은 청룡이로구나
—

이러한 여러 사당패 노래에서 확인되듯이 안성 청룡리는 사당패들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모두 남사당패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이말은 결국 청룡리에서는 사당패들이 없어짐과 동시에 남사당패들이 생겼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사당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사라지고 대신 남자들만의 집단인 남사당패로 바뀐 것이다.

사당패들이 남사당패로 바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개화기에 일본과 중국에서 들어온 서커스에 밀렸기 때문이다. 개화기 사당패들의 정적인 공연은 동적인 서커스에 비하여 큰 인기를 얻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일본의 서커스나 마술 쪽으로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1900년을 기점으로 청룡리에서는 서커스나 마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솟대쟁이패에서 살판쇠를 모으고, 무동패에서 무동단원을 모으는 식으로 체기(體技) 위주의 공연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초기 남사당패에서는 '얼른'이라고 하는 마술 공연도 하였다. '얼른'이란 눈을 얼른 속인다는 뜻의 남사당 용어이다. 이렇게 하여 체기에 약한 사당들은 모두 내보내고 남자들만 남은 남사당패로 전환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유성기의 등장이다. 우리나라에 유성기가 들어온 것은 1899년 이전이다. 1899년 3월 『황성신문』에는 서양에서 발명한 유성기를 사서 당시 봉상시 앞에 놓았으니 구경 오라는 광고가 실렸으며, 1899년 4월 『독립신문』에는 유성기에 명창광대, 기생 등의 노래를 넣고 움직이니 보고 듣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모두 기이하다고 칭찬하며 종일토록 놀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사당패들의 주 공연 종목은 선소리인데 유성기의 등장은 소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종목의 예인들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다. 사람들이 신기한 유성기에 빠져 기이하다고 칭찬하며 종일토록 놀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어지간한 예인들이 직접 부르는 노래보다 당대 최고 명창들의 노래를 녹음한 유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훨씬 신기하고 재미있었기에 굳이 사당패들을 초청하여 실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사당패들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밀려난 사당들은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서울로 가서 선소리산타령꾼 된 사람도 있다.

(3) 바우덕이란 누구일까?

바우덕이는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인물이다. 구전에 따르면 바우덕이는 1848년 가난한 홀아비 머슴의 딸로 태어나, 다섯 살 때 병든 아버지에 의해 청룡사 남사당패에 들어갔

다. 줄타기와 선소리, 새미(무동), 풍물 등 기예가 출중하여 남사당패로서는 전례가 없이 여자임에도 15세의 어린나이에 꼭두쇠가 되었다. 1865년 경복궁 중건당시 노역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경복궁 공연에 불려가, 뛰어난 기예로 공연을 하여 대원군으로부터 정 3품에 상당하는 옥관자와 악기들을 상으로 받았다. 그리고 21살이 되던 때부터 앓기 시작하여 23살에 폐병으로 죽었다는 내용이다.

바우덕이에 대하여는 1974년 심우성의 『남사당패 연구』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양도일, 남형우, 최성구, 정일파, 손순갑 제씨의 증언이라 하여 바우덕이가 조정까지 출입하던 인물로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이운선은 진위패 남사당의 곰뱅이쇠였던 바 그에게서 사사한 이경화가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청룡리 청룡사를 거점으로 당시 조정까지 출입하던 사당 바우덕이(본명 김암덕)의 힘을 입어 안성 개다리(?) 패의 가열(초입자)들에게 덧뵈기를 가르쳤다 한다. ---중략---

필자는 1959년 10월, 1967년 10월, 동년 12월, 1969년 1월 등 네차례에 걸쳐 현지를 답사한 바 -중략- 청룡리 본동 태생 이시용(72세) 옹의 증언에 의하면 -중략- 이들의 전 꼭두쇠(두목)이었던 사당 바우덕이의 명성은 대단한바 있어 '안성 청룡 바우덕이 소고만 들어도 돈 나온다'는 노래가 오늘에도 전해옴을 일러준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남사당패들이 하나 둘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떠난 후 간혹 남아있던 덜미 [인형] 등도 금기의 물건이라 하여 본동 주민들에 의하여 모두 소각되었다고 한다. 말년에 바우덕이의 거사(남편격)였던 이경화도 1920년경 바우덕이가 병사하자 2년쯤 혼자 살다가 이곳을 떠나고서는 다시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심우성은 바우덕이를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으나, 같은 책에서 마저 조정에까지 출입한 인물과 1920년대의 인물로 다르게 기술하여 활동시대상에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4) 경복궁 중건과 옥관자

만약 바우덕이패가 정3품에 해당하는 옥관자를 받았다고 하면 당시 4품인 안성군수보다 높은 품계를 받은 것으로, 이것은 안성에서 보통 사건이 아님에도 왜 사료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이 있다. 이는 당시 시대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다. 경복궁 중건 당시에는 교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실제 관직에 임명된 것은 아니다.

조선후기에 국가의 재정이 궁핍해지자 정부에서는 백성들로부터 돈이나 쌀 등을 받고서 사령장을 발급하였는데 이를 납속첩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는 첩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발급한 사령장이 있다.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써 넣는 식으로 남발을 하였는데 이를 공명첩이라 한다.

공명첩을 받은 경우 그 첩에 기재된 관직에 실제로 나아가 업무를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옥관자를 받았다고 하여 진짜 관직에 임명된 것은 아니고, 명예로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에 교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짜 관직에 임명하지 않은 교지가 많았는데, 교지 없이 주는 옥관자는 당연히 상징으로 봐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인들에게 옥관자를 수여한 경우는 희귀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929에 발간된 일제강점기의 잡지 삼천리 제3호에 보면 창을 하는 이동백옹과의 대담에 이동백옹이 고종 때 궁궐안 장악원에 인연을 맺고 경복궁과 덕수궁을 드나들때 옥관자를 달고 관복을 입고 출입(官服出仕) 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1927년의 별건곤 제3호에 보면 경복궁 중건 때 대원군이 가기무동(歌妓舞童)을 모집하여 선소리를 시키고, 그 가기무동을 위안하기 위하여 관작까지 줘서 궁중 기예(藝妓)까지 주먹 같은 옥관자를 복색 좋은 수탉 머리 모양으로 딱딱 붙이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게

된 것도 이때부터라고 하여, 연희자에게 옥관자를 수여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당시 대원군은 뛰어난 연희자에게는 옥관자를 자주 하사 하였으며, 바우덕이 만이 옥관자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 부르던 노래가 지금에도 전하니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이 넌즈시 앉았구나. 봉의 등에 터를 닦고 학의 나래에 집을 지으니, 동구재 만리재는 청룡이요. 왕십리 낙산은 백호로다. 물이라 조종 한강수는 금대같이 둘러 있고- 산이라 명산 관악산은 시계가 좋을시고. 남산 끝은 전위대요, 북악산은 후위대라. 인왕산이 우익되고 맹현이 좌익되여. 만호 장안 억만구를 내리 굽어 살펴보니 천하무비금성탕지, 억만세지웅도로다.」 (下略-원문)

이 노래도 어느덧 벌서 옛노래가 되어 서울과 같은 도회지에서는 별로 들어볼 수가 없고 다만 향촌벽읍에 아직까지 남아있어 촌로가동의 여흥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 노래는 당시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에 공사에 복역하는 일반관리와 역부를 위안고무하기 위하야 례의 영웅적 기풍으로 천하의 가기무동을 크게 모집하야 삼삼오오로 대를 편성하고 공사장에 가입하여 이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민간에서 가옥을 건축하려고 지경을 닦을 때에 발을 맞추고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하야 장고나 북을 치며 「잉여라-자-」 하고 가지각색의 소리를 밧고 채기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별건곤에 나오는 위의 기사에서 경복궁중건시 노역자들을 위로하고 지경다지기를 할 때 신명을 돋우기 위하여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이 넌즈시 앉았구나~'로 시작하는 지경다지기 선소리를 보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선소리를 부르는 사람은 천하의 가기무동을 모집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한 것이다.

1925년 추수 김태영의 『안성기략』에 따르면 당시 안성에서도 마을 두레패인 석정동 두레패가 경복궁에 나갔으며 당시까지만 해도 농기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당시 일꾼들이 불렀던 경복궁영건가에 각종 놀이패들이 나간 사실이 묘사되어 있다.

경복궁영건가에 따르면 화랭이패, 광대패, 무당패, 거사패등 놀이패들과 악공, 선소리꾼 등 음악에 필요한 모든 사람이 동원되었으며, 터 닦을 때 지경소리를 했다. 그 중 광대패는 판소리, 잡가 중심의 소리 광대를 지창하기도 하지만, 모든 예인패들 총칭의 성격도 지닌다. 이에는 남사당패, 사당패, 굿중패, 산대놀이패, 대광대패, 솟대쟁이대, 중매구패, 초란이패 등과 같은 전문예인을 포괄한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예인들을 모집할 때 전문 예인집단인 안성 남사당패도 나갔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남사당패가 지경다지기 소리를 했다는 사실과 바우덕이가 옥관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청룡리 주민들은 구전을 통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바우덕이가 1865년 경복궁 중건 때 공연하여 옥관자를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1968년 2월 17일자 동아일보기사에는 바우덕이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기사가 실려 있다. 남사당에 관하여 일평생 연구해온 민속학자 심우성이 청룡리 불당마을에서 제보를 받아 남아있는 남사당패를 찾던 중 마지막 덧뵈기쇠 양도일을 찾은 것이다.

양도일은 6세 때부터 남사당패에 들어가서 1936년 남사당패가 해체되던 30살이 되던 해까지 몸담았다. 그 후 약 30여년 만에 민속극회남사당에 의해 발굴되어 1968년에 YMCA에서 다시 공연하였다. 당시 양도일이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에는 이경화와 안성복만이패 전의 두목이 바우덕이라고 하며, 경복궁 중수식에서 춤을 잘 추어 대원군이 손을 잡아주어 손에 명주를 싸고 다녔다는 일화를 전해준다.

자취감춘지30餘年만에

舞臺에오른광대탈

假面流浪의40年

梁道一옹

옷잘입고 춤잘추는 굿중패에 흘려
大院君이 손잡은 바우덕이 金岦德

口傳따라 살살이뒤져
唯一한 技能者찾아내

동아일보

1968. 2. 17 동아일보

양도일은 6세 때인 1912년 남사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우덕이가 1920년 인물이라고 하면 양도일과 같은 시대에 공연을 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나 양도일은 '경복궁 일화를 전한다'는 구절처럼 직접 본 적은 없고 이야기만 전해들은 것이기 때문에, 바우덕이는 1906년도에 태어나 6살 때부터 남사당 생활을 한 양도일보다 훨씬 이전사람

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안성 남사당의 후예인 양도일에게 나온 이 이야기는 남사당패들에게도 바우덕이가 경복궁 중건에 출전하였으며, 대원군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음을 전승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안성 청룡리 주민들은 선소리를 잘해서 옥관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양도일은 여기에 대하여는 증언을 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미 150년 전 인물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말이 똑 같을 수는 없다. 정확한 문헌적 근거가 없을 때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안성중학교를 세운 추수 김태영선생은 1956년 『안성문화금석관』이라는 책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 안성군 서운면 청룡사 부근인 청룡리에서 '바위덕'이라는 여자가 처음으로 꾸며낸 것이라 한다. 여사당의 시초가 안성청룡인 동시에 '바위덕'이라는 여자가 얼굴이 아름답고 소고를 처가면서 노래를 잘불러서 여러 구경하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으므로 속요에 『놀러가세 놀러가세 안성청룡 바위덕이 집으로 놀러가세』 云云 하는 것이 생기며 청춘남녀의 입에 오르내렸다는 것이다. 남사당 여사당은 이조말엽까지 전국도처에서 볼 수 있었으나 신문화가 수입된 뒤로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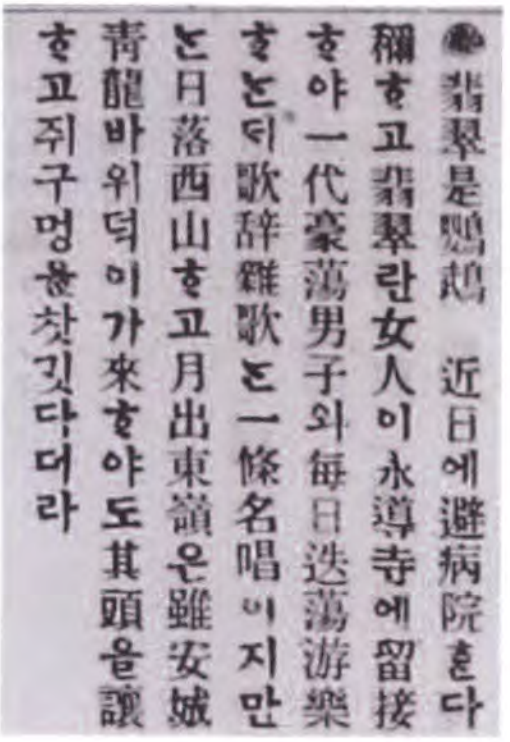
이 말을 분석하면 바우덕이는 소고를 잘치고 노래를 잘 불렀다는 것과 여사당의 시초로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신문화가 수입된 뒤로 자취를 감추었다는 말에서 개화기 이전에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우덕이는 수년전 일부 언론에서 지적 한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라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또한 "놀러가서 놀러가세 안성청룡 바위덕이 집으로 놀러가세"라고 하는 특정인을 위한 속요까지 사람들에게 전하여 진다는 것은 그만큼 바우덕이의 기량이 출중했음을 보여준다.

1909년 황성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앵무다

피병원한다 칭하고 비취란 여인이 영도사에
유접하여 일대호탕남자와 매일 질탕 유락하는데
가사잡가는 일조명창이지만 일락서산하고 월출동녕은
비록 안성청룡 바위덕이가 와도 그 머리를 뒤로하고
쥐구멍을 찾겠다더라.


翡翠是鸚鵡 近日에避病院ᄒᆞᆫ다
稱ᄒᆞ고翡翠란女人이永導寺에留接
ᄒᆞ야一代豪蕩男子와每日迭蕩游樂
ᄒᆞᄂᆞᆫᄃᆡ歌辭雜歌ᄂᆞᆫ一條名唱이지만
ᄂᆞᆫ日落西山ᄒᆞ고月出東嶺은雖安城
靑龍바위덕이가來ᄒᆞ야도其頭을讓
ᄒᆞ고쥐구멍을찻긧다더라

1909.10.2. 황성신문

이 기사의 '일락서산하고 월출동녕'이라는 말은 '일락서산에 해떨어지면 월출동녕에 달이 솟는다'의 줄임 말로 해가 서쪽에서 지면

달이 동쪽에서 뜬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가사는 사당패들의 노래인 염불타령, 선소리 산타령, 수심가 등 잡가에 나오는 가사이다. 따라서 이 기사로 보아 바우덕이는 당시 조선 최고의 잡가 가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바우덕이는 1865년 경복궁 중건 때 참가하였으며, 당대 최고로 기량이 출중한 사당패의 꼭두쇠였던 인물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